

“법정 스님 연꽃이라기 보다 난초처럼...”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법정 스님이 해인사 강원에서 ‘부처님 생애’를 가르치셨어요. 제가 스무 살 남짓이었으니까. 한 사십이삼 년 지난일이네요. 해인사 강원에 있다가 하루빨리 참선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에 걸터치고 도망 나와서 선방엘 갔죠. 송광사 선방에서 살 때 법정 스님이 불일암을 짓고 내려오셔서 다시 만났어요. 만남이라고 해봤자 스님은 불일암에 계시고 저는 송광사 선방에 있었으니까 지나면서 인사나 드리는 정도였어요.” 대한불교조계종화쟁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난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담담하게 법정 스님과 인연이야기를 꺼낸다.

요즘엔 스님들이 글 쓰는 일이 흔한 일이지만, 오래전 절집에서는 글 쓰는 일이 환영받지 못했다. 도법 스님도 글 쓰는 스님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 않은 양이라고 돌아본다. “뭘 중이 시시결명하게 글이나 쓰고 있나 생각했어요. 그때 정서로는 용납되지 않았지요. 그즈음 둔점(頓漸)논쟁이 불으면서 법정 스님도 글로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선명하지 않고, 법정 스님이 자리이타 개념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그때는 제가 선(禪) 중심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법정 스님한테 ‘부처님 생애’ 배워
첫 인상 “중이 시시결명하게 글 쓰나”
“그때 저는 禪 중심 사고 갖고 있었죠”**

참선해 깨닫는 것 말고는 다 시시하게 여겼어요. 그런 생각이 들수록 강하게 불을 지핀 분이 성철 스님이죠. ‘부모가 죽어도 쳐다볼 것 없다. 수좌(首座)는 오로지 참선해서 기어코 깨달음을 얻어야한다’고 했죠. 그때는 주류가 선방수좌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말석이긴 하지만 어쭙지않게 고무되어 있었어요.” 1981년까지 한국불교는 깨달음과 수행에서 보조국사 지눌 스님 돈오점수 사상을 선불교 핵심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당신 책 《선문정로》에서 깨친 뒤에도 계속 뒤야야 한다는 돈오점수를 비판하면서 깨달은 뒤에는 더 이상 뒤를 필요가 없다고 돈오돈수를 주장해 둔점논쟁 불을 지폈다.

도법 스님은 십여 년이 넘도록 선방에서 정진에 정진을 거듭했지만, 뜻대로 깨달음이 오지 않자 회의가 들면서 다른 사람은 어떤가 싶어 걸을 돌리려 했다. 그러나 선배들이나 친구들 또한 걸음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별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만 그런가? 해서 봤더니만 비슷비슷해요. 오로지 내 문제에만 골몰되어 있다가 바깥을 보게 되었어요. 둘러보니까 경전에서 배우고 법문을 듣고 전통에서 알았던 내용과 달리 이치에 닿지 않는 점이 많고, 도덕관점으로 봐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합리는 더욱 아니고, 좌절감과 회의가 밀려들었어요. 이긴 아닙니다. 내 길을 찾아야하겠다고 나오죠.” 그때 송광



사 방장 구산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도법 수좌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도법 스님이 선원에서 나와 자기 길을 가겠다고 출가한 절인 금산사로 돌아간다고 하자, 도반 하나가 대뜸 “네 분사를 찾아가 불을 썩들러버릴 테다.”하고 거칠게 나왔다. “분위기가 그랬어요. 허튼 짓거리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길이 으뎀인데, 제법 잘 가고 있다며 기대를 걸었는데 떠난다고 하니, 변질일까 낙오하는 친구에게 애정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또 제가 지금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단한 선배 한 분은 ‘네, 인생 갈림길에서 빠이빠이 하는 거다 이제.’ 그랬어요.” 고행을 포기한 싯타르타에게 짐을 벨고 떠나간 다섯 비구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겠다며 떠났는데, 정리하는데 한 오년 넘게 걸렸어요. 논리로는 정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판단이 명확히 서지 않는 점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최근 민족사 윤창하 사장이 ‘경허 스님 무애행 후회’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세상이 떠들썩한데, 법정 스님은 당시 막행막식(莫行莫食)을 하는 일부 몰지각한 승려들은 물론 일반불자들에게도 계정해 삼학에 따른 교육은 물론 일반불자들에게도 계정해 삼학에 힘을 쓰는 한편 송광사수련원장을 맡아 불자교육을 이끌어 템플스테이 효시를 이뤘다. 당신 또한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처음 계를 받은 하얀거

**선방정진 ‘깨달음’ 오지 않아 회의
승가대중단체 ‘선우도량’ 설립
법정 스님은 수련원 열어 불자교육**

해제 때면 늘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처음 마음을 돌이켰다.

도법 스님은 모순과 혼란을 거듭하는 한국불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도반들과 머리 맞대고 고민하다가 ‘선우도량’이란 승가대중단체를 만든다. 선우도량은 ‘우리가 한국불교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해서 종도들이 자기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자.’고 결의하고 교육문제에 매달린다. 그때 선우도량에서 준비한 교육 틀이 94년 조계종단 개혁 때 거의 모두 반영이 되었다. “교육문제를 발제하고 토론하면서 법정 스님을 찾았어요. 기초발제를 부탁드리니까 ‘되도 않는 헛짓거리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편지를 하셨어요. 당신도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도 좌절감을 드러낸 말씀이죠. 그 어른도 좌절할 때쯤에 바깥으로 나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셔서 기초발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 생겨 못 오시고 글만 보내셨어요. 한국불교를 참신하고 바람직하게 만들려는 취지에서 같이 살고 살지 않고,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관계없이, 함께 공감하고 같이 가야 할 본으로 신뢰하고 관심을 이어왔죠. 돈연 스님이 연결고리였어요. 돈연 스님은 오래도록 법정 스님을 보셨으니까요.” 법정 스님은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 법석에서 가까이 있더라도 뜻이 같지 않으면 심만 팔린 리이지만, 멀리 있어도 뜻을

같이 한다면 늘 함께 한다고 말씀했다.

도법 스님은 최근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을 존경하더라도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해야 한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참다운 존경을 하려면 건강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이제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이 남긴 무소유 환상에서 벗어나야할 때라고 했다. 무슨 말씀인가? 이 물음에 도법 스님은 그 어른들 뜻과 상관없이 환상은 만들어진다. 그러나 석가모니부처님이 불교를 한 까닭이 환상을 깨자는데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은 꿈을 꾸자고 하는데 불교 진리는 꿈 깨라는 말씀이다. 부처님은 그런 문제의 식으로 불교를 했지만, 정작 사람들은 부처님을 가지고 자기 환상을 만들어내듯이,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처럼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어른들 환상도 만들어진다며 운을 뗐다. “불교관 문제라고 봐요. 성철 스님이 갖고 있는 불교관이나 실천론에 저도 한때는 공감했죠. 그것이 한국불교 대세였으니까요. 법정 스님은 건전하고 참신한 지성을 갖춘 불교인으로 이치에 맞는 올바른 수행자로 공감되는 점이 많은 분이었어요.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잖아요. 대승불교 세계관과 정신으로 제시된 불교인상이 보살인데, 대승보살 상상이 연꽃입니다. 연꽃은 피고름이 뒤범벅이 된 진흙탕에 뿌리내리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피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더럽혀지지 않고 외려 들레를 정화시키죠. 그런데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 삶은 연꽃보다는 난초에 걸맞아하지 않을까요. 고고하고 향기롭죠. 그러나 대승불교가 가리키는 인간상으로는 어떨까요? 물론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삶도 보살 삶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탐진치라고 하는 피고름이 들끓는 현장에 두 발을 딛고 서서 꽃을 피우면서 탐진치란 피고름을 정화시켜왔다고 하기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두 어른은 연꽃이라기보다는 난초처럼 살아가는 분들이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어른들은 그대로 너무 훌륭하고 고맙지요. 그러나 한국불교 현실에서는 연꽃에 견주어지는 불교인, 출가수행자가 더 절실하지 않을까요.”

도법 스님은 법정 스님이 대중과 부대까지 않고 멀찌막이 떨어져 살면서 당신이 본 세상이나 생각을 아름다운 글로 풀어냈기 때문에, 수행자 삶은 마치 똥오줌은 없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만 있어야 한다는 막연한 기대를 대중들에게 품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잊는다. “대중들은 수행자란 추한 똥도 역한 똥냄새도 없이 아름답고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법정 스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글에 드러나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법정 스님만이 진짜 스님이야. 고결하고 향기로우. 스님은 그래야 해’라는 환상이 만들어졌죠. 그 틀에 맞추면 다른 스님들은 너무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라고 불만을 갖고 화를 내잖아요. 성철 스님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오년 동안 해인사 강원과 선방에서 살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철 스님은 별로 매력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어른이 불교를 보는 안목은 저보다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논리라도 수단이 가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다만 그 분이 깨달은 어른이고 선지식이나 비록 제 이성과 사유로 이해되거나 수긍

옴마니반메훤 금강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훤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훤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훤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강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북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강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훤 금강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부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강처리한 금강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격: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북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북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남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중고 불경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안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할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령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유일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앙, 기증, 의류, 보석, 부동산중개,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호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합원,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방, 주유소, 신세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5년 11월 27일 도법 스님의 생명평화발달순례단이 군위 인각사를 향해 가고 있다.

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능력으로 볼 수 없는 더 심오한 뜻이 있겠지 하는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승복되지 않는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분은 신화가 되셨잖아요. 세속을 멀리하고 은둔했기 때문에 세상에 오염되지 않아 청정하다는 환상이 만들어졌고, 그 어른이 검정고무신과 누더기로 상징되어지는 무소유도 본의가 어찌되었던 대중들한테 비쳐질 때는 법정 스님처럼 고결하고 담백한 웃음으로 출가수행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환상을 떠올리게 했죠.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어른들도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불도 때고 사셨잖아요. 성철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에 사셨고 법정 스님은 송광사, 불일암에 사시다 가 길상사에도 계셨는데, 해인사, 송광사, 길상사 이 절들이 돌아가니까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삶이 가능했죠. 그러면 백련암이나 불일암이 돌아가도록 하는 힘은 뭐였어요? 들여다보면 돈 백 원 벌려고 땀 흘려서 밥 먹고 추위에 떨고, 이른 새벽에서 늦은 저녁까지 사하촌(寺下村) 거리에서 나무 팔고 감자 판돈이 들어와서 절이 운영된다는 말이예요. 또 절을 운영하려고 기복(祈福)이나 상급 수완을 끌어들이잖아요. 이곳을 저는 혼탁한 연못이라고 봅니다. 이 바탕에서 길상사도 돌아가고 불일암도 돌아가고 해인사도 돌아가고 백련암도 돌아가잖아요. 과연 그분들 고결함과 향기로운 은둔함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모든 영광은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한테 가고 모든 비난은 상연화되고 기복으로 몰고 가는 절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만 쏟아져요.”

침대에 사람을 맞춘답시고 팔다리를 잘라내는 테세우스 침대처럼, 누구라도 환상으로만 들어온 기준에 맞지 않으면 멋대로 재단하고 도리질을 치는 세태를 꼬집는다. 동법새 없이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고 향기가 풍겨날 수 없는데, 동법새 없이도 꽃이 피고 향내가 날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

**“동법새 없이 꽃피고 향내날 수 없어
성철·법정 스님의 환상 벗어나
냉철한 비판·진지한 존경 함께가야”**

지면 결국 실제 삶이 왜곡되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판 없는 존경은 맹종일 수밖에 없고, 또 존경 없는 비판은 비난과 매도가 될 위험성이 높아 냉철한 비판과 진지한 존경이 늘 함께 가야만 바랍직하다는 말씀이다.

돈오돈수를 주장해 돈점논쟁을 일으킨 책 <선문정로> 율문을 도왔던 법정 스님은 율문을 부탁하러 온 원택 스님에게 일침일획이라도 어긋난 뜻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었다고 말씀했다. 그러나 정작 법정 스님은 ‘깨닫고 난 뒤에 계속 뒤야 한다.’는 돈오점수를 주장하는 쪽이었다. 그런데도 율문을 정성껏 도와드린 까닭은 성철 스님을 존경하기 때문이었다. 법정 스님이 성철 스님과 뜻을 달리한 일이 더 있었다. 1968년 가을, 성철 스님은 해인사 방장이 되고 나서 신도들에게 삼천 배를 시켰다. 한여름 남녘대 학생 수백 명이 법당에서 절을 하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바람에 옷이 젖은 몸에 달라붙어 보기 민망해 하던 법정 스님은 칼럼에 “몇 시간동안 몇 천배를 채우겠다는 기록의식에서인지, 아니면 최면상태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숨 가쁘게 굴신운동(屈伸運動)을 하고 있었다. 하필이면 부처님 앞에서 그토록 경박스런 동작으로 굴신한단 말인가.”라고 썼다. 방장 스님은 신심을 가지라고 삼천 배를 시켰는데, 꼭 그랬어야 했느냐는 해인사 삼직(三職) 스님들 항의에 법정 스님은 미안하다. 그러나 신심이 없어 보이고 불쌍사나운데, 방장 스님이 시킨 일이라고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 소동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다. 그 밑바탕에 성철 스님을 존경한 법정 스님과, 존경했기에 건강한 비판을 한 법정 스님이 함께 자리했으리라.

만남이 ‘부처님 생애’ 이기 때문이었을까. 법정 스님이나 도법 스님은 석가모니부처님 말씀을 헤아리는 일이 불교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했다. 법정 스님은 <불타 석가모니>와 <순타니파타>, <진리의 말씀>을 간결한 우리말로 번역했으며, 사람 붓다 일대기를 써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끝내 담아내지 못하고 열반에 들었다. 도법 스님은 <내가 본 부처>에 더 불행하기도 어려운 처지에서 스스로 평화가 된, 사람 싯타르타를 담백하고 순도 높게 풀어냈다. 부처님이 당신이 쓰던 말을 버리고 천민들 말로 진리를 펼쳤듯이, 법정 스님도 당신이 즐겨 쓰던 말을 내려놓고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한글로 세상과 진리를 나눴다. 도법 스님 또한 부처님이 49년 동안 한 발 한 발 걸어서 누구하더라도 말씀으로 진리를 나눴던 뜻을 깊이 헤아려 5년에 걸쳐 생명평화순례를 하면서 삼만 리를 걷고 8만이나 되는 사람들과 만나 말씀을 나눴으며, 오늘날 세상을 두루 오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격 없는 말씀으로 세상 먹살을 잡는다.

연재를 마치며, 만 2년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동안 소중한 지면을 선택 내어주고 보살펴 준 현대불교 식구들 그리고 숨 쉴 수 없는 글을 읽느라 고생한 독자들에게 여드려 고마움을 전한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옥잠화

봉선화가 질펀하게 놀다 간 도량에 옥잠화가 선 보였다. 옥잠화의 잠은 비녀 잠(簪) 자이다. 옥잠화가 피는 계절이 오면 열병을 앓게 된다. 머리속에는 어느새 디카가 자리 잡고 해일 수 없는 추억의 사진들이 집어든 마냥 꼬리를 문다. 아마 추억이란 꽃말을 가진 마력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도 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쪽진 헤어스타일을 두리번거리며 유심히 찾아보려고 하지만 허사다. 추억을 쫓는 김목에서 그만 방향을 잃기도 한다. 어머니의 모습을 찾으려는 시도였는데도 어머니는 쪽을 찢 머리에 은비녀를 꽂으셨다. 이따금 장포복에 머리를 감고 잠빰으로 머리를 빗곤 하셨다. 그런 날이면 난 옆에 앉아 신비한 경험을 하곤 하였다. 무료해하는 아들에게 뽀뽀한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비녀의 몽롱한 곳에 매어 놓고 눈높이로 들어 볼뎀 신기한 소리가 나는 비녀를 깃가에 들려주던 소리가 있다. 비녀가 들면서 종의 맥놀이 현상이 일어난다. 단순한 맥놀이가 아니라 백만 대군이 진군하는 말발굽 소리가 선연하다.

만 아무 내색도 없이 거두어 주신 어머니의 품이 껍이나 너덕했던 듯 하다. 아침밥까지 한 상에서 나눈다. 지금 세상의 눈으로는 측량하기 어려운 일이다.

옥잠화는 약간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란다. 추위에 견디는 능력도 탁월하다. 항상 지고 살며 양보를 생활화 하며 뒷전에 자신의 자리인 양 늘 그렇게 사신 분이다. 또 기억하고 있다. 땀내가 밴 수건과 옷, 발에서 김을 매다 내가 다가가면 오이 덩굴을 이리저리 헤쳐 오이를 발견하면 가시 돌진 물의를 따 석세배 치마에 쓱쓱 문질러 손에 들려주던 손길이 그림자. 추억은 이렇게 애절하고 그림기만 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추억마저 없는 사람은 어떨까. 그들도 추억이 없는 것은 아니련만 알고 순간적인 것들이 아닐까 한다. 나의 추억의 보고 같이 크고 다 양함을 찾지만 어려울 것 같다. 추억의 무진장은 그래서 좋다.

자식이 커서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다는 안감음이란 말도 내게는 사전에나 있는 말이 되고

**옥잠화 피는 계절 열병 앓아
추위에 견디는 능력 탁월해**

말았다. 무엇 하나 배울 수 있는 길이 없으니 그렇다. 그리움의 속성은 부재인 듯하다. 유명을 달리던 지금 만나보고 추억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 뿐이다.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것이다. 그 길만이 열병도 작게나마 치유가 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유명교주 지장보살님. 법계의 유주 무주 고훈 애흔들이 이승의 모든 집착과 애욕, 고통을 여의시고, 생명을 벗어난 절대 진리를 얻어 깨달음의 피안에 이르기 바랍니다.

정조 이전만 해도 비녀에 온갖 장식이 다르고 종류도 다양하여 사치의 표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정조는 발제개혁을 단행하여 여성의 전유물이 된 쪽 머리는 거센 문명의 물결에 밀려 타래머리와 함께 사극에서나 이따금 볼 수 있게 되었다.

피어 있는 옥잠화의 향기를 만끽하다가 떨어진 꽃에 눈길이 멈춘다. 들추어 보기도 한다. 저 꽃에 긴 머리카락으로 매달아 예전처럼 바람을 불어보고 싶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은 일.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찾은 길 없으니. 가질 수 없기에 허전하고 누릴 수 없기에 허탈한 것이라면 난 그리 순순하고 싶지 않다. 다 갖고 다 누리고 싶다. 추억이란 비행선에 올라 몇몇 세대를 거슬러가다 보면 진짜 누리고자 했던 세계가 나오겠지. 꿈이 아니다. 그곳에는 은비녀의 말발굽 소리가 있고 석세배의 내용도 은은할 것이다. 육신에 이별이 있다면 영혼엔 변질되지 않는 추억이 있기에 인간은 지치지 않을 수 있다.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파고다의 황금 빛 파노라마를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5일 (목,토요일 출발) 특가 899,000 (유류세 별도)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짜익티오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7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스님들 추천 상품

-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 ▣ 중국 지장도량 (구황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 12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인도성지순례 - 6명이상 출발 가능

- ▣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9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네팔 인도 불교8대성지 완전정복 13일. 대한항공 직항. 월요일 출발가능 / 요금문의
* 인도상품 다양합니다. 문의주세요
- ▣ [실존의 나라]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 189만원. 금-일요일 출발
-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 토요일 출발 /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헤거 합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희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